



『양화소록』 서평 강희안 지음, 서유희·이경록 옮김, 놀와, 1999

안치운 · 호서대 디지털 문화예술학부 교수 | 연극평론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무심하게 꽃들이 피고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꽃들이 지닌 나름의 생명력을 고맙게 생각하게 되었다. 가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갈 때가 있다. 그때마다 아내를 꽃가게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묻고 화분 하나를 사고 싶어 했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사는, 이른바 합리적 지식이란 것을 안고 사는 나는 베란다에 있는 꽃들을 여태껏 자세히 들여다 본 적이 없다. 노는 날 정성들여 물을 주어 본 적도 없고, 이사할 때 옮겨야 할 품목으로 기록하지도 않았다.

『양화소록(養花小錄)』은 책이름 그대로 꽃을 기르면서(양화) 쓴 작은 기록(소록)이다. 책은 “16종의 꽃과 나무 그리고 괴석에 관하여 서술한 부분, 꽃을 기를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일곱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 방식은 각 화초에 대한 옛 사람들의 기록을 폭넓게 인용하고 이들의 품격을 논한 문장이나 시를 적절하게 보탠 다음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8쪽) “선비화가의 꽃 기르는 마음”이라고 역자와 출판사가 부제를 붙여 놓은 것처럼 이 책은 단순히 꽃 기르는 기술을 전해 주는 책이 아니다. 꽃을 접붙이는 법(접화법), 난을 나누는 법(분란법), 꽃에 물을주는 법(요화법), 꽃과 나무가 싫어하는 것(화목기), 연을 심는 법(종연법), 화분에서 꽃과 나무를 키우는 법(종분내화수법), 석류를 꺾꽂이하여 심는 법(삽류법), 창포를 기르는 법(양창포법)과 같은 꽃 재배에 관한 것이되 기르는 기술이 아니라 기르는 마음을 읽도록 하는 책이다. 기술과 마음의 차이를 읽는 것, 기술에서 마음으로의 전이가 이 책을 쓴 저자와 5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한글로 번역 출판한 분들의 참 뜻일 것이다. 이 분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이 불가능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이야말로 사물과 삶에 대한 진정한 척도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강희안이 이 책을 저술한 것은 1449년부터 1465년 사이라고 역자는 말하고 있다.(10쪽)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550년 전에 씌어진 책이다. 저자는 글과 시와 그림에 능숙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화가였던 강희안이다. 책 겉장 날개에는 저자 강희안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그의 그림이나 문집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양화소록』이 세상에 전해진 것은 착하고 똑똑한 동생이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강희행이다. 그가 저자인 형에 대해서 쓴 글은 참 아름답다. 형이 “세상을 떠난 지 9년 후 봄에 그의 정원을 찾았더니 가꾸지 않아 잡초가 우거지고 꽃과 나무가 망가져 버렸다. 배회하면서 돌아켜보니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16-17쪽) 형과 형의 정원에 있었던 꽃과 나무는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형이 죽고 꽃과 나무가 망가져 버렸다는 것은 부재하는 것에 대한 이중의 아픔이고, 형을 그리워 하는 동생이 지닌 애절함의 깊이를 말한다.

이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우선 씌어진 연대를 복기해야 한다. 550년 전에 한자로 씌어진 책이 지금 번역되어 우리를 앞에 놓인 시간과 공간을 झा어보아야 한다. 저자가 시와 글과 그림에 두루 능숙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인문적 사유와 꽃 기르는 것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다. 꽃을 기르는 기술이라고 해서 인문적 사유의 대상 바깥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삶과 관계된 모든 것이 인문적 성찰을 필요로 했던 것 같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되면 꽃은 꽃이되 아름다움과 생명을 지닌 대상이 된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기고, 꽃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으로 여기는 데 있다. 꽃이 아름답다면 꽃에 대해서 글을 쓰고, 꽃 그림을 그리고, 꽃을 생명으로 읽을 줄 아는 이가 더 아름답다는 뜻이 된다. 그림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저자 강희안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가수 안치환이 꽃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라고 노래한 것은 옳지만, 이미 오래 전에 그렇게 말한 이가 있었다.

